

息山 李萬敷의 性理學과 文藝美學*

申斗煥**

目次

1. 문제의 제기
2. 식산의 성리학적 일상과 그 주변
3. 성리학적 형상사유와 문예미학의 논리
4. 결론

1. 문제의 제기

식산 이만부(1664~1732)가 살았던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은 당쟁으로 얼룩진 격동의 시기였다. 이황과 이이의 출현으로 절정에 올라있던 조선성리학은 조선을 뛰어난 인문국가, 도덕국가로 만들었으나,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전쟁은 사회의 격변을 초래한다. 임지왜란과 병자호란의 두 차례 전쟁이 휩쓸고 간 후 황폐한 조선사회는 급변하고 있었다. 성리학은 이 시기에 국내외로 불어 닥친 위기에 대처하고 관리하는데 그 한계성을 드러내었다. 잇단 기근과 질병, 수탈착취당하는 농민층의 동요, 당파싸움의 갈등, 대외교역에 따른 상인층의 성장, 그리고 명으로부터 들어온 양명학, 천주교, 고문사의 영향 등이 주자학에 문자하나만 틀려도 사문난적이거나 이단으로 취급되던 고질화 되어가는 성리학의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당시 성리학을 고수한 조선 후기 남인 사림의 최고 학자인 동시에 시·서·화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예술인의 한 사람이었던 息山 李萬敷(1664~1732)는 자기 시대의 학문을 확립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는 당파 싸움으로 인하여 극도로 혼란해진 조선 후기의 선비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로 당대 선비의 임무를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식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권태을로부터 시작되었다. 권태을은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식산의 학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식산의 다양한 면모를 학계에 보고한 바 있다.¹⁾ 그의 연구는 불모지였던 식산 이만부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그의 업적은 후배 학자들의 연구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김남형에 의해 그의 실학적 성격의 예술론이 조명되었으며²⁾ 기타 다방면에서 논문과 번역서가 이루어지고 있다.³⁾ 이러한 학문적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예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으며, 대부분 연구는 실학사상과 관련지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이 식산을 실학사상의 橋頭堡로 떠올린 반면 식산이 의도한 성리학 본연의 시각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안동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로 연구되었음.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 權泰乙(1983; 1984; 1984a; 1984b; 1987; 1987a; 1987b; 1988; 1988a; 1997; 1999).

2) 金南馨(1988; 1998a; 1998b).

3) 朴贊善(1883); 鄭暎鎬(1994); 조남호(2004); 이선옥(2000); 박영달·신영철(2001); 남춘우(2003).

으로 파악하는 일에는 소홀하였다. 따라서 그의 성리학적 예술철학이 바탕이 된 문예미학의 측면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때까지의 연구가 방대한 자료에 비해 그 연구자가 적고, 그 연구 경향이 자료에 대한 소개와 사상에 치중되었던 만큼 문학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과 심화된 논의는 이제 출발 단계에 와 있는 실정이다.

일련의 조선 후기의 문학 연구의 양상이 실학사상에 압도되어 이와 관련된 작품만 분석하여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문학적 의의’ 라고 결론을 내리는 연구 경향이 있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자칫 작가의 개성을 획일화 시키는 몰개성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다. 문학 연구는 내재적 관점에서 텍스트를 분석하면 당대 상황에 대한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현실 대응 논리를 발견할 수도 있고, 동시에 순수한 작가의 의도를 찾을 수 있는 컨텍스트의 성격도 있을 수 있다. 일차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미리 사상의 선입견을 가지고 임하는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간과하는 연구 태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식산은 과연 실학자 였는가? 식산의 문집에서는 반 주자학 내지 탈 주자학적 경향의 새로운 학문적 조류는 나타나지 않는다. 식산은 이러한 학문 사상을 수긍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자학에 몰두한 사람이다. 소위 학계에서 일컫는 영·정조 이후 실학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의 문학 작품도 이러한 성리학적인 상상력이 바탕이 되어 창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식산의 문집인 『식산집』에는 약 700여 수의 詩를 비롯해 書, 序, 跋, 記, 論, 評, 箋, 銘, 祭文, 碑碣, 墓誌, 行狀, 說 등 성리학적 글쓰기로 점철된 다양한 문체들이 실려 있으며 그의 작품은 총 140 권이나 된다. 우선 작품의 방대한 양으로만 보아도 식산의 문학은 간과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성리학적 상상력이 바탕이 된 문학작품들이다. 본고에서는 정통 주자학의 입장을 고수하며 창작된 식산의 글쓰기를 토대로 그의 성리학과 문예미학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식산의 성리학적 일상과 그 주변

息山 李萬敷(1664~1732)는 이조판서를 지내고 관중추부사에 오른 芹谷 李觀徵의 손자요, 이조참판과 경기도 관찰사를 지낸 博泉 李沃의 아들로 현종 5년, 1664년 12월 22일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仲舒, 호는 息山이며, 본관은 延安이다. 그의 가계는 近畿南人의 명문이었으며 지봉 이수광의 외손이기도 하다.

하루는 집안 어른들이 어린 이만부에게 장래의 뜻을 묻자 선생은 정주의 학문 즉 성리학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하였다.⁴⁾ 이것은 식산이 정주의 학에 정통한 큰 학자가 될 것을 예고하는 언급이다.

그의 나이 15세 때 그의 부친 李沃이 송시열의 극형을 주장하다가 탁남에게 몰려 북청으로 귀양 갔다. 이때가 숙종5년(1678년)이다. 식산은 부친의 귀양지를 직접 따라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모시면서 학문에 몰두하였다. 이 시기를 두고 성호는 행장에서 “참을성이 강하여 학문이 날로 진보하여 서북 지방을 다녀오면서 더욱 이치와 정취가 증대된 것이 신타래를 푸는 것 같았다.”⁵⁾고 하고 있다. 식산은 가학을 통해 주자학의 기초를 갖추

4) 『息山先生文集』, 「息山集跋」: 顯宗五年甲辰十二月二十二日生公 時已立乙巳之春也 生質粹美 肌膚冰雪 目瑩瑩若明星 既有知志趣莊潔 舉止端雅 人已知其非凡器也 一日 有長老進而問志 先生對曰 所願學程朱.

었으며 학문과 예술을 하기에 좋은 환경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庚申大黜陟 이후 남인에게 불어 닳친 잔인한 상황을 직접 목도한 그는 누구보다도 당쟁의 아픔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관료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깊이 깨달았을 것이다.

숙종15년(1690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탈환하자 식산 이만부에게도 새로운 삶과 희망이 싹텄다. 부친도 유배지에서 돌아온 후 조정에 복직되었으나 식산은 과거를 통한 관료의 길을 포기하고 누향에 있으면서 단사표음의 낙을 즐길 뜻이 있었다. 그는 한양 서호근처에서 살면서 정주학에 몰두하였으며 예·악·사·어·서·수·육예에 두루 통하였다.⁶⁾ 이것이 후일 학문과 예술의 기초가 되었다.

식산은 이 시기에 성균관 대성전의 석전의 의례를 관람하고 성균관 석채의 의례를 따져서 『대학성전』을 저술했다.⁷⁾ 이 책을 저술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그의 학문은 시작되었으며 곧바로 성리학으로 이어진다. 그는 이 시기에 학문하던 동료들과 함께 영남을 유람하였다. 이때에 서애의 사당을 알현하였고 도동서원과 팔현서원에서 독서도 하였다. 식산은 ‘이기심성학과 예학을 바탕으로 도학을 주로하는 퇴계학통’⁸⁾을 선호한 것 같다. 이때가 식산 이만부의 나이 27세 무렵 이었다. 이시기를 두고 성호는 행장에서 “영남은 나라 안의 추로지향이었다. 식산은 그 남은 아취를 전수받기를 원함이 있었다. 드디어 제문을 지어서 서애 유성룡 선생의 사당을 배알하였다.”⁹⁾고 하였다.

식산은 퇴계의 학풍을 잇고자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서애의 학문을 계승한 것이 많다. 식산은 그로부터 9년 동안 퇴계와 서애 등 영남학맥의 글들을 탐독하며 은둔의 준비를 한 시기로 판단된다. 드디어 그의 나이 34세 때 경상도 상주의 외답, 노곡리, 息山의 아래에 터를 잡고 이거 하였다. 息山의 호는 바로 이 지명을 딴 것이었다.

식산은 또한 저절로 쉬니	息山亦自息
멀리 평야와 풍광이 구분 되네	遙分平野光
형체는 고요한 이후에 무성해지니	體靜而後茂
나는 나의 일상을 편안히 지내려 할 뿐 ¹⁰⁾	我欲安吾常

식산은 치열한 당쟁으로 지친 조선 후기 사회를 염두에 두고 息(息)는 이미지를 가지고 호로 삼는 배경을 읊었다. 이만부는 네 가지를 쉬고자 했다. 사고하는 것을 쉬고, 몸을 쉬고, 말하는 것을 쉬고, 교유하는 것을 息한다고 하였다.¹¹⁾ 식산이란 호에는 은둔의 경향이 짙게 드러나고 있다.

식산은 儒賢의 아름다운 풍속이 있는 영남을 좋아하여 이곳에 거주하였으며 거처할 때는

5) 『息山先生文集附錄[上]』, 行狀[李瀾] : 旣而 參判公以直道竄邊徼 先生從 時年甫十五 動心忍性 學日進 因遊陟西北流峙 增益其理趣 繹如也.

6) 「息山集跋[李敬儒]」 : 有陋巷簞瓢之樂之志 遷于西江之上 閉門讀書 專用力於四子及程朱氏之文 旁通于六藝之書.

7) 『息山先生文集附錄[上]』, 行狀[李瀾] : 有來質釋菜儀者 先生爲之著太學成典

8) 이수건(1990), 825쪽.

9) 『息山先生文集附錄[上]』, 行狀[李瀾] : 庚午 遊嶺南 嶺南國之鄒魯 雅有受塵之願 遂操文謁西厓柳先生祠.

10) 『息山先生別集』, 권1, 陋巷錄, 「山川雜詠」.

11) 『息山先生別集』, 권1, 陋巷錄, 「四息說」 : 息思 息躬 息言 息交.

반드시 그윽하고 단아했으며 정원이나 연못, 꽃, 나무를 소요할 때에도 반드시 차례가 있었으며 그의 堂室樓亭은 반드시 명 의미가 있었고 일상생활이 성리학적 실천이 아님이 없었다고 한다.¹²⁾

식산은 오묘한 성리학의 뜻을 누정의 명칭이나 관물의 태도에 함의시키면서 성리학적 형상 사유를 일상화 하고 있다. 식산은 상주에 거주한 지 일 년 후에 부친상을 당하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 삼년상을 행하였다. 36세에 다시 상주의 노곡으로 돌아와 주자의 시구(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를 따서 天雲齋를 짓고 제생들과 강학을 하고 부로들과 여씨향약을 행하였다. 그는 나이 43세에 영의정 崔錫鼎이 학술로 벼슬에 천거하였지만 사퇴하였다. 그 후 47세에 증조부 李禕이 거하던 聞喜 華陰山 아래로 옮기어 저술과 편찬에 몰두하였다.

식산은 49세에 다시 尙州 魯谷으로 돌아와 학문에 몰두하던 중 천운재가 화마로 소실되어 그 북쪽에 다시 천운당을 짓고 유람을 떠난다. 지리산, 가야산, 청량산, 금강산, 속리산, 등을 유람하고 조선 최대의 산수 기행록인 靑地行錄을 저술하였다. 식산은 평소 산수의 유람을 좋아하여 영동, 영남의 명산대천을 두루 유람하였다. 그 지세와 지맥, 풍속, 기운, 노래, 습속 등을 채집하여 기술하지 않음이 없었다.¹³⁾ 그 이후에는 거의 靑주역에만 몰두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靑易統과 靑易大像便覽을 저술하였다. 58세에는 靑도동록의 저술 때문에 영남의 사림들과 대립이 심하여 金陵 蟾峯으로 옮기고 「遷寓對」, 「遷居八首」 등을 지어 학문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59세에 상주의 北郭 升谷으로 다시 돌아와 時習齋를 짓고 기거하였다. 66세 무신년 義兵을 창도했다는 것으로 천거되어 長陵 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또 筵臣의 주달로 氷庫 別提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식산은 벼슬에는 평생 나아가지 않고 학문과 강학에만 몰두한 참학자였다.

영조 8년(1732년) 12월 18일, 병으로 時習齋에서 졸하였다. 69세로 별세할 때까지 주자의 학문과 시·서·화로 일관하는 처사로 살았다. 그가 벼슬을 단념하고 학자로 살아가려는 이면에는 그의 학문과 예술적 삶이 오롯이 남아 있었다.

식산은 다방면에서 많은 遺稿를 남겼다. 靑息山文集 38권(原集 22권, 續集 10권, 別集 4권, 附錄 2권), 靑道東編 20권(2권 失傳), 靑易統 8권, 靑禮記詳節 30권, 靑四書講目 7권, 靑志書 15권, 靑易大像便覽 2권, 靑太學成典 13권, 靑魯餘錄 1권, 靑讀書法 2권(상, 하권), 靑讀書日記 1권, 靑閨訓 2권(한글본 상, 하권, 失傳), 靑雜錄 1책 계 140권에 이른다.¹⁴⁾

성호 이익은 輓詞에서 “영남에 법도가 보존하여 진유가 떠난 후에도 집안을 높인다고 하여 영남의 진유로 평가”했으며, 또 말하기를 “무미의 미로 참 군자가 되었고 광거의 거로 대장부라 일컬어졌다. 淸臺 權相(1679~1760)은 “평소 거문고는 금인의 곡을 연주하지 않았으며 황권은 오직 옛 성인의 마음을 전하였다.”라고 하였다.¹⁵⁾

식산의 교유 관계는 전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었고 폭넓은 지식인층을 형성하고 있었

12) 靑息山先生文集附錄[上] 3, 行狀[李漢] : 愛嶺南有儒賢善俗 卜居焉 所居必幽靚 園池花木 必有序致 堂室亭樓 必有名義 日用無非道也.

13) 靑息山先生文集附錄[上] 3, 行狀[李漢] : 素好山水之遊 乃遍覽嶺東南名山大川 其地勢土脈風氣謠俗 無不采摭記述.

14) 한국문집총간해제 민족문화추진회.

15) 星湖李公挽曰 大嶺以南存法度 眞儒去後敞門庭 又曰 味無味作眞君子 居廣居稱大丈夫 淸臺權公挽曰 素琴不奏今人曲 黃卷唯傳古聖心.

다. 식산과 함께 시를 수창한 사람으로는 李弘憲, 李萬維, 申維翰, 金重玉, 李衡祥, 吳尙遠, 洪鏡, 權相一 등이 있으며 식산과 교유가 있었던 인사들을 그와 주고받은 편지글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면 南人과 少論의 학자 및 그의 門人들이 대부분이었다. 李玄逸, 丁時翰, 李世弼, 李光佐, 權以鎭, 李衡祥, 李洵, 權甲萬, 李潛, 李栽, 李淑, 元致道, 柳聖和, 河大應, 趙自敬, 申濬, 吳尙遠, 李瀼, 黃翼再, 權相一, 盧啓元, 洪相朝, 李國春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내용은 대부분 성리학에 관한 것, 예악, 산수 지리 등에 대한 문답이 많으며, 특히 瓶窩 李衡祥과의 편지에는 「周易」 및 음악, 문학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많았다. 이 당시 병와 선생은 영천에 은거하여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친하게 지낸 것 같다.

그의 방대한 교유 관계로 볼 때 영남의 성리학이 식산 이만부를 통해 근기학파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의 당대 이름 있는 학자들과는 거의 교유를 하였던 주자학의 큰 봉우리였다.

성호는 식산의 행장에서 “오호라 선생은 벌열의 집안에서 태어나 부유한 가운데서 성장하여 출중한 재주를 타고 나셨다. 특별한 뜻을 가지고서 서민의 무리 속에서 머물면서 학문의 근원을 밝히는데 정신을 집중시켰다. 부귀와 이욕을 뛰어넘어 도탄 속으로 들어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생하시면서 즐기기를 가축이 풀을 좋아하듯이 하였다. 큰 자취를 맨몸으로 행하여 즐겨 은둔하여 뜻을 바르게 하였다. 動靜에 젖고 표리가 같았으니 실천궁행하여 순일한 유자로 사람들에게 떠받들어져 훌륭한 스승이 되셨으니 처사로서 이름이 완전하였고 유학의 으뜸이라고 이를 만하다.”¹⁶⁾라고 하였다. 식산은 성호 이익으로부터 당대 성리학의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3. 성리학적 형상사유와 문예미학의 논리

앞 장에서 보았듯이 식산은 성리학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성장하면서도 성리학의 영향을 벗어나본 적이 없었으며 성장해서도 성리학을 숭모하면서 살았고, 사후의 평가도 성리학의 대가로 평가 받았다. 식산의 문예 담론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식산은 왜 그토록 성리학에 심취했을까? 퇴계 이황을 비롯하여 월천 조목, 학봉 김성일, 서애 유성룡 등이 추구한 영남 성리학에서 나타나는 성리학 공부의 특징은 ㉠근사록㉡에 대한 공부였다. 식산은 그의 성리학적 기반을 기초로 ㉠근사록㉡의 공부를 통해서 성리학적 인식과 사유체계에 대해 진일보한다. ㉠근사록㉡을 통해서 그의 성리학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더욱 깊어져 갔다. ㉠근사록㉡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실려 있다.

爲天地立心하고 爲生民立命하고 爲王聖繼絕學하고 爲萬世開太平하라 (近思錄2)

천지를 위해서 마음을 세우고, 생민을 위해서 명을 세우고, 옛 성인을 위해서 끊긴 학문을 잇고, 만세를 위해서 태평을 연다.¹⁷⁾

16) ㉠息山先生文集附錄[上]㉡, 行狀[李瀼] : 嗚呼 先生生於閭閻之門 長於綺紈之間 稟出類之才 持特立之操 住足於衆趨之中 會神於昭曠之源 富貴利達 邁逾塗炭 飢凍困苦 嗜若芻豢 賁趾而徒行 嘉遯而正志 動靜相涵 表裏互資 視之于躬爲醇儒 推之於人爲明師 可謂處士之完名 吾學之宗匠也.

다시 말하면 이 슬로건은 식산이 인식한 성리학의 학습 목표이자 곧 道였다. 이것이 곧 당대 선비의 책무라고 인식한 식산은 주렴계, 장횡거, 정명도·정이천, 주희 이들 송대 오현을 사모하며 그들의 진상을 그려 벽에 걸어 두고 성리학 공부에 독실하게 매진해왔다. 『근사산집』에는 『근사록』을 공부한 흔적이 보인다.

『근사록』 등사본이 끝나서 지극히 정밀하게 완비 되었다고 하니 이것은 큰 기쁨입니다. 부지런하고 정성을 다한 필찰의 공도 여사일 뿐이겠습니까?¹⁸⁾

수일 동안 계속 머무르면서 여러 벗들과 『근사록』 몇 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대개 근래에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들어본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의론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¹⁹⁾

『근사록』을 읽으니 그 자질과 근본이 아름다웠습니다. 근일에 다시 읽을 뜻이 있으니 깊이 숭상할 만하다.²⁰⁾

식산은 『근사록』 공부에 치중했으며 성리학은 공리공론이 아니라 실학이며 가장 이상적인 학문으로 판단하였고, 성리학의 원대한 뜻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해좌 정범조는 “식산은 염(주렴계)·낙(정호·정이)의 여러 글들을 즐겨 보았으며 더욱 정호·정이 및 주자의 학문을 독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목표로 삼았다. 일찍이 주렴계, 장횡거, 정명도·정이천, 주희 이들 오현의 진상을 그려 벽에 걸어 두고 존모하였다. 동방의 퇴계 선생을 추존하여 정주의 적통을 얻었다고 하였으며 여러 학자들의 어지러운 학설을 깊이 따져서 그 잘못을 밝혀내어 엄격한 언사로 변별하고 배척하였다.”²¹⁾고도 했다.

식산은 “회재 이언적(1491 ~ 1553)과 남명 조식(1501 ~ 1572)은 출처가 서로 같지 않다. 두 선생은 비록 서로 합석해서 학문을 토론했으나 그 합치되는 것은 적고 합치되지 않는 것은 많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조식은 사람됨이 청렴결백하고 고상하다고 하나 관대하고 집값은 아량이 없이 백이를 본받고 섬기려는 자이다.”²²⁾ 라고 하여 남명 조식을 회재 이언적과 비교하여 비판한 적이 있었다.

또 “이기설은 곧 천하의 올바른 공정한 이치로서 사람들은 누구나 모두 공감할 수 있는데도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주리설과 주기설로 나누어 두 이론을 가지고 마치 진나라와 월나라가 전쟁하듯 서로 문벌끼리 갈라져서 다툰다. 이렇게 전승되어 온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사사로운 감정과 사특함이 서로 섞여서 일언반구만 그 마땅한 근본을 연구하더라도 반드시 선입견을 가지고 다만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을 미리 어느 곳을 향하는지를 추측하여

17) 『근사록』권2 : 爲天地立心 爲生民立命 爲王聖繼絕學 爲萬世開太平.

18) 『근사산先生文集』, 권9, 書, 「答盧伯春」: 近思謄寫本 已極精完 此不是小幸 既勤且誠 筆札之工 亦餘事耳 金剛之行 定以來十一發程 行者不可無驢 況此行非偶耶 望吾伯春 不惜以一言侈吾行也.

19) 『근사산先生文集』, 권9, 書, 「答河聖則」: 數日留連 諸友共讀近思數篇 蓋近來所未見所未聞之事也 不無議論相資益.

20) 『근사산先生文集』, 권9, 書, 「答河聖則」: 讀近思錄 資質本美 近更有志 深可尙.

21) 『근사산先生文集附錄[上]』, 碣銘[丁範祖]: 樂觀瀟洛諸書 而尤篤信兩程氏及朱子之學 爲依歸 嘗繪周張程朱五賢眞像以寓慕 推尊東方李退溪先生 謂得程朱嫡統 深惡明諸儒亂眞之說 嚴辭辨斥.

22) 『근사산先生文集』, 권13, 「關西問答記疑」: 晦齋與南冥 出處自不同 二先生雖合席而論 吾知其合者少 而不合者多矣. …… 聞曹植之爲人 清潔自高 而無寬弘之量 欲效伯夷之事者也.

끊고서 좌편 우편으로 나누어 영화와 욕으로 이것을 판가름 한다. 대저 누가 선뜻 나서서 분발하여 관문을 열고서 방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감을 변화해서 을이 되게 하고 을을 변화시켜 갑이 되게 하리오.”²³⁾ 라고 하여 이기론에 대해서는 서로 다룰 것이 없는 천하의 공론인데도 불구하고 ‘퇴계학과’와 ‘율곡학과’가 대립하는 기이한 현상을 두고 우리나라에 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여 ‘퇴계학과’와 ‘율곡학과’를 싸잡아 비판하였다. 식산은 과별을 타파하고 화해와 절충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또 식산은 “요결을 정한 것은 율곡이 창작한 것이 아니고 송나라 여러 현인들의 것을 따온 것이며, 또한 그 약행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약행이라는 것은 단지 기제와 묘제일 뿐이니 四時正祭인 즉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²⁴⁾라고 하며 율곡의 저술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식산의 이기설은 주리론적인 성격으로 퇴계와 서애의 이론을 계승하였으며 주자와 퇴계의 학설을 비판 한 적은 없다. 그의 이러한 학문적 성격은 퇴계학과, 남명학과, 율곡학과 등 과별들을 초월하였으며 그들을 비판하거나 수용함에 특정한 구애를 받지 않았다.

식산은 공부를 마치고 떠나가는 제자 유여명에게 학문에 대하여 다섯 가지 곧 입지, 강학, 용공, 양심, 무실로 요약하여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이 글의 다섯째 글인 務實 부분만을 단장 취의해서 식산을 소위 영·정조 이후의 실학자들과 같은 성격의 실학자로 규정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식산의 이 글은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면 식산이 언급하는 실학은 곧 성리학의 실천으로 판명된다. 강학을 이야기하면서도 주자를 언급하고 있고, 용공을 이야기하면서도 경서를 배제하고 사사로운 이단의 학문을 제거하면 실학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또 務實 부분에서 일용인사의 학문 즉, 예를 들면 언행은 忠信하게, 행동은 篤敬하게 하고 孝悌忠信하는 것이 곧 실학이라고 했다. 이것은 주희의 글을 인용한 것이다. 식산의 이 글을 종합해 보면 식산이 말하는 실학은 곧 주자학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²⁵⁾

‘일심이 실하지 않는다면 일이 모두 실패가 없다’는 말은 ‘忠信하지 않는다면 일이 모두

23) ㉠息山先生文集㉡, 권6, 書, 「答申文甫」: 理氣說 乃天下正正之公理 人皆可公議 而只爲吾東二家一秦一越 分門割戶 傳習既久 參錯私邪 雖有一言半句 是當究其本 則必以先入 亘在肚裏 向前斬斷 左袒右袒 榮辱判焉 夫孰能挺特奮發 明目張膽 開關鍵而入堂奧 以化甲爲乙 點乙成甲哉.

24) ㉠息山先生文集㉡, 권10, 書, 「答吳生別紙」: 要訣所定 非栗谷創說 宋之諸賢 亦許其略行也 然所謂略行云者 只是忌祭奠祭而已 四時正祭 則不當行也.

25) ㉠息山先生文集㉡, 권11, 雜著, 「書贈柳厲仲」: 柳厲仲 千里相從 講學于息山之下 其歸也 息山人送之有言 一曰立志 二曰講學 三曰用功 四曰養心 五曰務實 言甚無文 然相勉者 古人之道 不薄也 何謂立志 凡人有志最貴 人患莫甚於志趣卑下 然有志而不能立 終與無志同歸 曾有學於雪翁者 方聽雪翁教誨 大有所警省 及歸其家 所與遊多戲狎之人 故不能自立於其中 因循苟且 遂至放倒 此正有志未立者之戒也 厲仲非無志 而氣未厲力未充 且今歸窮鄉 無師友之益 或恐其志之少渝 須毋苟合於人 苟循於俗 不以少善少能爲自足 以遠大爲期也 何謂講學 學者 不可廢讀書 讀書所以講學也 既讀書而所講 止於文字 非所謂學也 讀書之法 則一依朱先生之教 不可粗舉 有疑處拈出 問難于人 己亦益加潛究 凡書既讀無疑 疑而不釋 皆非善學者也 何謂用功 學者 所期雖曰遠大 其用功則當循序漸進 不可躡等 讀書也 厭經籍而喜異書 造行也 忽平近而務隱怪 言語也 舍忠信而好誇大 皆助長之病者也 助長者 私意也 未有用私意而能成實學者也 何謂養心 心爲一身之主 而萬化出焉 苟不養焉 何以爲人 養之道 敬以直內是也 敬則中有主 而外物不能奪 凡心之不得其養 爲外物侵亂故也 孟子曰 養心 莫善於寡欲 欲非但財利 凡意念纔爲外物發者 皆是也 厲仲方有病 務養心 則學問根本有定之外 亦將調和其氣 體骨充強而宿病漸祛 勉之 何謂務實 今之學者 不務實 修飾外面者多 今宜就日用人事 求其理而體行之 若人事之學未至 先求高遠之事 終無所實得也 如言忠信行篤敬 入孝出弟等事 乃實學也 實學熟 則實心漸完 苟無實心 所得何能久爲己有

실함이 없다’는 주자의 말을 근거로 하고 있다.²⁶⁾ 결국 식산의 실학은 공자, 주자의 논리를 신실하게 실천을 중시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것은 소위 학계에서 일컫는 영·정조 이후 실학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상당한 거리가 있다.

중국의 명청교체기의 실학은 식산이 주자학을 실학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황종희(1610~1695), 고염무(1611~1671), 왕부지(1619~1692) 등 명청교체기의 진보적 사상가들은 학술 사상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학설을 펴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심성론만 헛되어 부르짖는 심학을 반대하고 明心見性의 공언 즉 송대 이학을 비판하였으며 육왕학을 몰아내고 정주를 배격하여 송대 이학에 대해 중지부를 찍으려 한 것이다. 명청교체기의 실학적 조류는 이수광, 이익, 정약용 등의 실학적 학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온종일 정좌하고 앉아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책장이나 뒤적이며 옛 예복을 착용하며 배례를 익히는 일을 익히면서 민생과 군사, 국방 등의 문제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당대의 유자들을 비판하였다.²⁷⁾

그러나 식산은 「심경도」, 「명덕도」를 그리는 등 성리학의 특징인 도설을 많이 생산하였고 箴銘류의 글이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규보의 경설을 연상하게 하는 「心鏡圖」는 거울과 마음을 그려낸 明心見性의 걸작이다. 식산은 성리 오현의 그림을 벽에 걸어 두고 송대 이학자들을 숭앙하였으며 그의 성리학적 일상은 이와 같은 실학자들의 비판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이것은 영·정조 이후 학문의 새로운 조류를 숭상하는 실학파들의 비판의 대상이었다. 성리학에 몰두했다고 해서 진부한 학자는 아니다. 따라서 식산에게 있어서 실학의 용어에 대한 뇌동비평은 경계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식산은 문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을까?

성호 이익은 행장에서 “오늘날의 문학하는 선비들이 모두 말하기를 동방의 문은 오직 녹봉과 더불어 서로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또 산수에 대한 여러 기록들은 유종원보다 뛰어나고 비지문은 거의 한유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²⁸⁾라고 하였다. 식산은 성호로부터 동방의 최고 문장가로 극찬을 받았으며 특히 그의 산수유기와 비지문은 당나라 때 고문의 대가인 유종원과 한유에 비견시키고 있다.

식산은 “문은 그릇이다. 시경·서경·역경·춘추에는 성인의 도가 실려 있다. 제자백가의 문에는 이단의 도가 실려 있다. 사장의 문은 그릇이 비어서 실린 것이 없다. 순수하고 박잡하기도 한 것은 도이고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한 것이 세상이다. 후세 사람들은 그 실을 것을 가리지 않고 그 그릇만 꾸미니 어리석은 일이다.”²⁹⁾라고 하였다.

식산은 문예를 文以載道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載道之器로 파악하고 있다. 문장의 근본은 육경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제자백가의 문은 이단의 도가 실려 있다고 하여 배격하였으며 철저한 경전 중심의 글쓰기를 주장하고 있다. 도학을 배제한 채 사장에만 힘쓰는 당대의 문풍을 비판하였다. 식산의 문학론의 준거가 되는 이 언급 속에는 철저한 성리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대의 성리학자들이 주장한 문학관을 계승한 것이지 문풍을 바꾸고 수정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식산의 문학관은 철저한 성리학적 문예

26) 小川晴久(1990), 22~50쪽 참조.

27) 步近智, (1990), 22~27쪽 참조.

28) ㉠息山先生文集附錄[上]㉡, 「息山集跋[李敬儒]」: 世之文學之士 咸曰 東方之文 唯與鹿峰相侔焉 又曰 山水諸記 過於柳州 碑誌之文 殆與昌黎可上下.

29) 李萬敷, ㉠志書㉡, 권8: 文器也 詩書易春秋 聖人之道載焉 諸子之文 異端之道載焉 辭章之文 虛其器無所載焉 順駁道也 汚隆世也 後人不擇其載 惟責其器 惑也.

관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식산은 人事之學을 강조한다. 孝悌忠信하는 기본 행동, 즉 인성적 기초가 되지 않았는데도 잘 기억하고 암송하며 사장으로 문장의 풍부함을 자랑하여 아름다움을 흠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여 사장 위주의 문예 성향을 배격하고 있다. 군자는 도를 실천하여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는 말에 의해서 후세에 전해지는 것이니 문장이 아니면 도가 전해질 수 없다고 하여 도와 문의 상관관계를 정했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들은 독서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독서는 문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도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고 하여 도학적 독서를 강조했다. 식산은 도 위주의 문학관을 전개하고 있으며, 문예에 도가 함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³⁰⁾

ㄹ시경크이 삼강오상을 밝힌다고 보는 것은 시의 효용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것은 심성수양의 문학관을 표현한 것이다. 시로서 “나라의 존망을 징험함은 치인의 도리를 밝힌 것이고 시비득실을 올바르게 이해함은 사무사 정신의 구현이다.”라고 한 것은 경세적인 것이다.³¹⁾

식산은 ㄹ시경크의 모든 시는 絃歌의 음악이라고 했다. 식산은 ㄹ시경크의 六義를 정리하기를 ‘여향에서 나온 것을 風이라 했고’, ‘공경대부에게서 나온 것을 雅라고 했고’, ‘종묘교사에서 나온 것을 頌이라고 했다. 그 뜻인즉 比賦興이라고 했다.³²⁾ 여향의 시세계, 관료의 시세계, 종묘의 시세계로 나누고 비와 부와 흥은 모두 그 뜻이라고 한 것이다. 식산은 시와 음악을 연결시키고 있다.

식산은 “시란 것은 사람의 마음이 물상에 감응하는 것이고, 형태에서 감동하여 감탄하고 읊조리는 것이다. 감상함에 사특함과 올바름이 있고, 시어에는 선악이 있어서 본받을 것이 있고 경계할 것이 있다. 고로 시는 興起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시경 삼백 편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무사라는 것은 모두다 교화를 위한 까닭이다.”³³⁾ 라고 하여 시의 의미를 정감의 세계를 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의 효용을 선악으로 구분하여 孔子의 시관인 ‘興觀群怨’으로 연결시키고, 시경의 思無邪 정신을 강조하여 시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소」는 시경의 시가 한번 변한 것이고 오언시는 「이소」가 변한 것이다. 주자는 오히려 그 괴이하고 신이 하며 원망하고 근심하고 격한 언사를 초사집주에 실었으며 또한 위아래의 고시를 취하여 초사의 뒤를 잇고자 하였으니 주자의 뜻은 반드시 소재가 있었다. 아! 우리 영남은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살펴보면 중국의 巴漢關中과 같아서 떨어져 있는 것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江漢으로 떠를 두른 것 같다. 民物豐謠를 가지고 예악의 교화로 말한다면 중국의 鄒魯와 같아서 선왕의 유풍과 남은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우리 조종이 삼백 년 동안 배양한 것이 깊고 두터운 것이다. 영남은 한 국가의 근본이 되는 곳으로 훌륭한 학자, 나라의 동량재, 충효, 지조있는 열녀, 명행의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서 일어나 (중국의 추로를) 대신하기에 모자라지 않는다.³⁴⁾

30) ㄹ息山先生續集크, 권6, 書, 「答南叔學」.

31) ㄹ息山先生續集크, 권6, 書, 「答南叔學」.

32) ㄹ息山先生續集크, 권1, 詩, 「南風 并序」: 古者有採詩之官 王巡狩 陳詩以觀其風 察其俗 知得失焉 春秋之末 孔子取古詩三千 去其重 取可施於禮義者三百餘篇 皆絃歌之 蓋其出於閭巷者 謂之風 出於公卿大夫者 謂之雅 用於宗廟郊社者 謂之頌 而其義則有比賦興焉.

33) ㄹ上全크: 詩者 人心之感於物 而動諸形 咨嗟詠歎 感有邪正 言有善惡 可法可戒 故曰 詩可以興可以觀可以言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 皆所以爲教也.

34) ㄹ上全크: 離騷爲詩之一變 五言詩爲再變 而朱子猶取其怪神怨懟激發之辭 既定著楚辭輯註 又欲取

식산은 「이소」를 괴이하고 신이하며 원망하고 격한 언사가 있는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는 시로 파악하였다. 서에는 “굴원의 잘못은 지나친 忠에 있다.”³⁵⁾ 는 주자의 초사집주를 바탕으로 대저 도는 중용을 지극한 것으로 삼아 희로애락이 다 天然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지나침과 모자람은 모두 정도가 아니어서 다 中을 잃은 것이라고 평하였다. 식산은 이것을 발전시켜 초사를 이해하고 있다. 중화의 미의식과 온유돈후의 미의식이 서애를 거쳐 식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식산은 영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중국의 河南關中과 같은 지리적 특성과 추로와 같은 유평 진작을 들어 주자학을 일으켜 큰 인물들을 배출한 성현의 고장으로 대치시키고 있다. 식산은 영남을 ‘추로지향’이라 했다.

.....

다행히 여러분이 있어	幸有二三子
서로 더불어 눈 감고 귀 막을 수가 있도다.	肯與相瞽聵
우리들은 모두가 미치광이가 아닐 뿐 아니라	不是吾黨狂
모두가 진실됨을 알고 있으니	知爲十室忠
글방과 유교의 동산에서	書塾與儒園
꽃다운 청춘들이 공부하는 것은 같다.	芳春筆研同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니	舉目視天地
이미 유학이 쇠퇴 하였도다	已矣吾道窮
유평은 오직 이 땅에 있고	冠帶惟斯域
문물이 사해에는 비었도다	文物四海空
다들 알고 있으리 유학의 물결이	儘知洛泗派
동방이 아니면 남을 곳이 없다는 것을	不東靡所終
욕될까 의심하여 스스로 아첨하지 말라	休疑汚自阿
이 도동편을 지은 것은 만고의 공론이다	題篇萬古公
이 글로 제군들에게 부탁하노니	書此托諸君
바라건대 걱정일랑 쏘아 버리게 ³⁶⁾	庶幾瀉憂仲

우리나라 지식층은 여진족 청나라가 명나라를 침공하자 청나라를 유교적 도덕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명나라를 유교적 도덕국가로 인정하였다. 명이 쇠퇴하자 유교적인 중화의 문화는 중원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선이 유교적인 도덕국가의 유일한 계승자라고 생각했다. 소위 조선-중화주의 및 주자학의 번성이 이를 받쳐 주고 있었다. 이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식산은 우리 동방의 주자학의 연원과 계승 과정을 총 망라한 『도동편』을 지었다. 이 시는 『도동편』을 지은 배경을 함축해 낸 시로 우리의 유교적 도덕 문화의 우위성을 확인하려는 자긍심의 발로였다. 유학의 물결이 우리나라가 아니면 남을 곳이 없다고 노래했다. 이런 중화 세계의 해체는 우리 조선 유학 세계의 해체와 이

漢魏以來古詩 以附楚辭之後焉 朱子之意 其必有所在也 噫 維我東之有嶺南 以地執觀之 猶中國之巴漢關中 隔以崑函 而帶以江漢 以民物風謠 禮樂教化言之 亦猶中國之鄒魯 聖賢繼開 先王遺風餘教猶在者 此卽我祖宗三百年培養深厚 作一國之根本 弘儒碩輔忠孝貞烈名行之人 代不乏者也.

35) 『西厓先生文集』, 卷十五, 雜著, 「離騷」.

36) 『息山先生文集』, 卷1, 詩, 「自魯東 轉棲道南書院 校道東編 書懷 示諸君」.

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 주자학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당대 조선의 지식층은 주자학을 고수하느냐 벗어나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식산은 주자학을 고수하고 계승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의 결말 부분은 『도동편』에 실려 있는 율곡의 이기설을 두고 영남학과 성리학의 거두 밀암 이재가 옳지 않으니 빼어 버리는 것이 옳다고 한 것에 대해 식산은 이것은 내가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고인들의 성리학에 대한 언급을 산삭하여 취한 것이다. 후세의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어진 자는 어질다고 할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다고 할 것이니 어찌 반드시 더하고 반드시 빼야 할 것이 있겠는가? 라고 대응했다. 이로써 師友之間에 서로 의심을 하고 보는 것이 옛날과 같지 않았다. 대학자들도 서로 간에 이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고 했다.³⁷⁾ 여기에 대해서 이 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도동편』은 공정한 론이니 욕먹을까 의심하여 그들에게 아침하지 말고 그런 근심 걱정일랑은 쏘아 버리라고 부탁하고 있다.

식산은 성리학이 중국보다 우리나라에서 꽃피운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며 해동도학의 학맥과 선현들의 언행을 정리한 것이 『도동편』이다. 이것은 식산의 학문적 성격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식산은 ‘해동도학’에 관심을 가지고 성리학을 추구했으며 天運說에서 하늘은 돌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것에서 자득한 것을 기초로 ‘중국중심주의’에서는 탈피하였다. 식산은 만동묘를 세워 중국의 황제를 모시려는 우암 송시열의 행태를 민족사적 입장에서 비판하기도 하였다. 식산은 우리의 민족에 대한 연원을 추구하여 단군을 국조로 인정하고 민족사를 인식하였으며 중국과는 다른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로서 민족주체성을 인식하였다. 식산의 성리학은 문학을 유도하였고 문학을 발전시켜 독창적인 새로운 미감을 느끼게 하였다. 성리학은 그만큼 표현의 기교와 문체의 질을 문예미학적으로 향상시켰다. 인간의 성정을 표현하는 것만큼 문학적인 것도 또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이미 문학의 문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주자로부터 학습된 자연미의 향유 방법은 모방과 창조라는 문제를 수반한다. 인간의 자아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충실하고 성실한 표현은 절제되고 숭고하고 엄숙했다.

식산은 “「상산사호도」를 벽에 걸어 두고 고요히 고매한 풍격과 여운을 대하면 마치 한 자리에 끼어들어 있는 것 같아서 나태하고 나약한 자를 일으켜 세운다. 지금은 이와 같은 사람이 없으니 한스럽다. 한 번 나서 세상을 도우고 다만 붓 끝에 의지한 그림에 머물 뿐이다. 선생이 밭을 지은 두어 구의 말은 더욱 사람으로 하여금 경계를 촉발하게 합니다. 세 번 거듭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³⁸⁾라고 했고, 또 그는 “세속에 「상산사호도」는 반드시 마뚝 두는 형상을 본떠서 그리는데 나는 지초 캐는 형상을 그리고자 한다.”³⁹⁾고 노래하기도 하였다.

식산은 상산사호를 동경했다. 그는 「상산사호도」를 벽에 걸어 놓고 때때로 감상했던 모양이다. 어떨 때는 그림 속에 빠져 들어가 마치 한자리를 차지하고 같이 있는 환상에 젖을 때도 있었다. 이 그림을 감상하면 나태하고 나약함을 일으켜 세울 정도로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고 했다. 요즈음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상산사호

37) 『도동산先生續集』 권2, 書, 「答洪紱一」: 理氣說卒難究 惟所編道東書 并收栗谷理氣說密庵言 其不可拔去爲宜云 吾以爲此非我所自著 只刪取古人言語 後人見之 仁者以爲仁 知者以爲知 何必與奪於其間乎 以此士友間 疑彼此之見不同 大學士亦必聞此也 然兩家說 亦不無互相消詳處 而未能也.

38) 『도동산先生文集』 권9, 書, 「答鄭元甫 胄源」: 四皓圖 掛起壁間 靜對高風餘韻 彷彿如挹一席 起懶立懦 恨今無此等人 一出扶世 只憑毫末景止而已 先生題跋 其中數句語 尤令人警發 未嘗不三復而歎也.

39) 『도동산先生續集』 권1, 詩, 「商山四皓圖歌」 참조.

에 대한 동경은 퇴계의 글에도 언급되는 바, 세상을 구제할 만한 노인들이나 찾아갈 만한 스승이 없다는 말로 비약될 수도 있다. 정원보라는 사람이 이 그림에다가 두 구의 발을 지은 것을 두고 경계의 마음을 촉발한다고도 했다. 식산은 주자학을 공부하면서 때때로 그림을 펼쳐서 감상하며 은둔의 뜻을 돈독히 하며 자기가 목표한 바를 되새긴 것 같다. 상산사호의 의연한 風度儀表의 美는 일종의 도덕미와 인격미로서 세인들의 칭찬을 받아오던 것이다. 식산이 이 그림을 동경하고 사모하는 것은 상산사호의 이러한 은둔의 뜻을 그려낸 것이다. 식산은 바둑을 두는 상산사호의 이미지보다는 지초 캐는 군자의 이미지를 더욱더 사랑하여 지초를 캐는 사호도 그림을 애호하고 있다. 식산은 그림 감상에 있어서도 세상을 교화하는 효용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원망과 허물을 우 아래로 끊고
단표누항의 속에서 산다네⁴⁰⁾

怨尤絕上下
簞瓢陋巷中

식산은 단표누항으로 자연을 完樂하려는 뜻이 있었다. 그는 고통과 가난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다. 이것은 삶의 미학인 동시에 물상을 관조하는 심미안에 작용하여 문예미학의 바탕이 되어 작품으로 나타나는 바, 식산의 문예에는 단표누항의 초월적이고 유유자적하는 미의식이 나타난다.

식산은 우리나라 전국의 명승고적지와 명산을 거의 답사하고 가는 곳마다 地理誌的 성격의 기행문과 시(詩)를 모아 4권 11륙과 부록으로 편성하여 「地行錄」이라 하였다. 이 지행록은 한국 최고의 산수유기로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세상을 등지고 졸박을 길러서
성리학을 보존하여 높이 걸리라⁴¹⁾

養拙負清時
吾道存揭厲

이 시구는 식산이 금강산 유람 중 그 시작 지점인 통구에서 지은 것이다. 養拙! 이 용어의 심오한 미감과 그 깊이는 성리학과 관련이 있고 유래가 있는 단어이다. 주돈이는 졸박을 주제로 「拙賦」를 지었다.

누가 나에게 이르기를 ‘남들이 그대를 보고 拙하다.’고 한다. 나는 ‘巧는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이 있고 세상의 근심거리는 대부분 巧이다.’라고 말하고 기뻐하면서 이에 대한 賦를 지어서 말한다.

잘난 척 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나 못난 척하는 사람은 말을 아니 하며, 잘난 척하는 사람은 늘 수고로우나 못난 척하는 사람은 한가로우며, 잘난 척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만 못난 척하는 사람은 덕이 있으며, 잘난 척하는 사람은 흥하고 못난 척하는 사람은 길하다. 아! 천하가 졸하면 정치가 두루 철해져서 상하가 편안하고 순조로워서 풍속은 맑아지고 폐단은 없어지느니라.⁴²⁾

40) ㉠息山先生文集, 권1, 詩, 「玩樂二首」.

41) ㉠息山先生別集, 권3, 「地行錄6」, 「通溝」.

42) 周敦頤, 『周元公集』, 권2. 「拙賦」: 或謂予曰 人謂子拙 予曰 巧 竊所恥也 且患世多巧也 喜而賦之 曰 巧者言 拙者墨 巧者勞 拙者逸 巧者賊 拙者德 巧者凶 拙者吉 嗚呼 天下拙 刑政撤 上安下順 風清弊絕.

이것은 식산이 추앙했던 주렴계의 글로 『명심보감』에도 選集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하게 읽혀 오던 글이다. 식산이 흠모했던 주자도 독서를 언급하면서 즐박을 언급하였다. “차라리 상세하게 할지언정 간략하게는 하지 말라. 차라리 아래일지언정 높이지는 말라. 차라리 줄할지언정 교하지는 말라. 차라리 가까울지언정 심원하게는 하지 말라.”⁴³⁾라고 하였다.

퇴계는 「도산잡영」에서 “비로소 내가 시내 가에 거처할 곳을 골라 집 두어 간을 엮어매고 서책을 저장하고 즐박을 기르는 장소로 삼았다.”라고 했다.⁴⁴⁾

식산은 금강산을 유람하며 태평성대를 등지고 즐박을 기른다고 하였다. 주렴계-주자-퇴계-식산으로 이어지는 성리학적 형상사유와 즐박의 문예미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창랑노인이 말하기를 “이 산은 하늘과 땅이 처음 나누어질 때 흠이었으리라 생각되고 오랜 세월 비가 씻어 내려서 이렇게 큰 바위들이 드러났을 것이다’라고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천지자연의 이치와 맑고 빼어난 기운은 감추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품성 또한 그러하니 백이숙제의 청절함을 보자 아니하였습니까?”라고 했다.⁴⁵⁾

식산은 경물에 임하면 뜻을 얻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았다. 이택후가 말한 ‘立像以盡意’이다.⁴⁶⁾ 더 이상 성리학적 상상력은 도덕적인 글만이 아니다. 상상적 진실과 비유와 상징, 함축 등 문예미학의 문제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 사람의 품성을 운운하고 백이숙제의 청절을 보고자 한 식산의 형상사유는 무엇이 바탕이 된 것인가? 천지자연의 이치와 사람의 품성을 연관 시키려는 것은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성품을 연결하려는 성리학 본연의 취지를 추구한 것이다. 이 부분은 성리학적인 형상사유의 예술적 성격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성리미학의 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겠다. 성리학자가 아니고서 금강산의 풍경 속에 일일이 성리학적인 오묘한 이치를 넣어 중의적으로 형상화해 낼 수 있는가? 이런 심오한 표현은 문예미학의 발로이다. 식산이 유람 중에 추구하고자 한 물아일체의 경지는 도학적 심성수양의 이상적 추구이다. 식산의 『지행록』에 나타난 산수유기의 일상은 그 성격이 다분히 성리학의 철학적 기초에 의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息山先生續集』, 「律呂推步」에는 음의 장단을 치밀하고 정치하게 분석해 내고 있으며 식산의 음악에 대한 정열을 볼 수 있는 장이다. 식산은 음악에 대한 이해에서도 성리적이고 도학적인 성향의 예술철학이 드러나고 있다.

音律이라는 것은 陽氣의 움직임이며 陽聲의 시작에 반드시 聲이 고르고 氣가 감응한 뒤에야 천지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역수에서 완전함이 아니면 절기도 정을 바꾸어 읽는 것이다. 律이라는 것은 中和의 쓰임을 지극한 경지에 이르게 하여 최고의 선에서 마치게 한다고 하였다.⁴⁷⁾ 식산은 음악적 효용가치를 심성수양에 미치는 지극한 것으로 파악하여 樂敎의 정신을 피력하고 있다. 『식산집』의 반은 악부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식산은 시가의 가사와 악보를 가지고 직접 거문고로 연주한 악부시의 예술

43) 『주자어류』, 권10, 「독서법」165 : 讀書, 須是遍布周滿 某嘗以爲寧詳毋略 寧下毋高 寧拙毋巧 寧近毋遠.

44) 李滉, 『退溪先生文集』, 권3, 詩 「陶山雜詠」: 始余卜居溪上 臨溪縛屋數間 以爲藏書養拙之所….

45) 『息山先生別集』, 권3, 「地行錄6」, 「金剛山記」.

46) 李澤厚, 『美學三書』, 安徽文藝出版社 1999, 353쪽.

47) 『息山先生續集』, 권10, 「律呂推步」.

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식산은 식산정사의 건축 공간 구조나 원리의 경영을 직접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건물 명칭에 있어서도 주자를 의식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주자의 정신을 곳곳에 붙여넣고 있었다. 天雲齋의 명칭은 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의 주자시구를 본따온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 퇴계는 이 시구를 따서 ‘光影堂’이라고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식산은 주자와 퇴계를 통해 성리학의 미의식을 생활화하고자 하였다. 식산정사의 노곡기 등에서도 주자를 답습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성리학의 이치를 바탕으로 개성을 추구한 건축의 공간 미학을 창출하고 있었다. 건축과 조경 분야에서도 그가 일생 동안 추구한 성리학의 예술철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의 식산정사의 공간구조와 정원의 미의식은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⁴⁸⁾

ㄱ息山先生續集ㄱ, 「武夷志略」에는 식산이 주자의 「무이도가」를 염두에 두고 「무이구곡도」를 그린 그림과 「무이구곡」에 대한 상세한 주석이 실려 있어 주목된다.

“나는 늦게 태어나서 그 문하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땅이 아득히 멀어서 한 번 그 안을 답사하지 못했다. 그 남은 풍광을 따서 돌아와 드디어 손수 무이도 한 본을 모사하고 「회옹정사기」, 「무이잡영」, 「무이도가」 등 무릇 여러 가지 주자의 무이향에 속한 것을 취하여 그 아래에 써서 때때로 뒤적여 보면서 만나 보기 어려운 것을 추급하여 감상하곤 한다.”⁴⁹⁾고 하였다. 또 “뒤늦게 양황숙의 「무이지」를 얻어서 읽고, 깎고, 찾고, 모아서 편집하였다. 광대하고 넓고 상세하고 정밀하여 그 마음 씀이 부지런 하였다. 비록 그러나 너무 널리 취한 바 산만하게 섞여 나오니 혼란스러운 탄식이 없을 수 없었다. 이어 가만히 간추려서 그 산 빼어나고 신이한 것을 표하고 강의 곡절을 변별하여 그 형태로 하여금 그 원류를 그려내어 가지런히 바로잡고 찾아서 바꾸어서 전해 흘러오는 옛날의 사실이 비록 황탄에 가깝더라도 또한 그 하나 둘을 취해서 주를 달고 그것을 붙여서 전해진 것의 의심스러운 예로 삼았다.”⁵⁰⁾라고 하였다.

식산은 양황숙의 「무이지」를 얻어서 읽고 일곡에서부터 구곡까지 「무이구곡」에 대한 상세한 주석을 가하고 있다. 식산은 후인의 체영에 이르러 다 취할 겨를이 없어서 기록하여 하나로 통일하였다. 한가롭게 거하며 일이 없을 때 서첩을 펼쳐 놓고 서로 마주하고 있으면 뜻과 기운이 스며들어 산등성이와 뒀, 바위, 골짜기에 정신이 헤엄치며 출렁거린다. 누대에서 숲과 나무를 관찰하고 뽁뽁하게 나열된 것이 눈앞에 있다. 시내와 도랑의 물소리, 원숭이 우는 소리, 새의 지저귀는 소리들이 모두 귀에 들려오는 듯하다. 황홀하여 구곡에 배를 띄우고 삼십육봉을 지나서 돌아오는 듯하다. 배우는 자는 뜻이 풀어지고 기운이 빠지는 것을 두려움으로 여긴다. 장차 이 서첩을 읊조리고 외우면 또한 무너지고 떨어져서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반성할 수 있다고 했다.⁵¹⁾ 식산은 比興의 예술 사유와 초도덕적 감정태도로 무이도를 감상해 내고 있다. 식산은 왜 무이산을 그토

48) 박영달·신영철(2001).

49) ㄱ息山先生續集ㄱ, 권9, 雜著, 「武夷志略」: 余生也晚 不及其門 又地遠 不能一跡其中 搵遺風而歸 遂手自摸武夷圖一本 取晦翁精舍記 雜詠棹歌凡諸屬武夷者 書其下 時披閱以寓難追之感矣.

50) ㄱ息山先生續集ㄱ, 권9, 雜著, 「武夷志略」: 晚得楊恒叔武夷志 讀之 搜刮哀輯 宏博詳密 其用心勤矣 雖然 所取太博 散見雜出 不無猥釀之歎 仍竊爲之節約 於山表其秀異 於水辨其曲折 使其體執源流 齊正易尋 而流傳故實 雖近荒誕 亦取其一二 懸註附之 以爲傳疑之例.

51) ㄱ息山先生續集ㄱ, 권9, 雜著, 「武夷志略」: 至於後人題詠 不暇悉取 錄爲一統 閒居無事 展卷相對 意氣浸淫 精神游漾 岡巒巖洞 臺觀林木 森列在眼 溪聲澗韻 猿嘯鳥噪 響合在耳 恍然若泛九曲 歷三十六峰來耳 學者以志渝氣餒爲懼 若將是卷吟諷 亦可以警省頹塌而不自知矣.

록 흠모했을까? 식산은 주자를 답습하고자 한 은둔의 성리학자였다. 무이정사와 식산정사 그 공통점은 단순한 시사가 아니다. 그는 성리학적 文理를 주자학을 통해 예술 문자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식산집』의 상호텍스트성 성향은 문예미학을 추구하고 있었다. 홍만중은 “文章과 理學은 문지방만 넘어서면 한 몸이다. 세인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바로 두 가지 물건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인으로 말하면 한유가 문장으로 도를 깨우쳤고 『恥齋集』에서는 점필재가 문장으로서 도를 깨우쳤다고 했고, 『석담유사』에는 퇴계도 문장으로 도를 깨우쳤다고 했다.”⁵²⁾ 여기서 이학은 성리학 곧 도학을 말하는 것이다. 문학과 성리학은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였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다. 식산 이만부는 문장과 도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식산은 도를 배제한 문학의 태도는 경계하였다.

精一中極은 文의 體요, 詩書禮樂은 文의 用이다.⁵³⁾ 이라고 한 『동문선』 서문의 이 말은 성리학과 문학의 관련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식산은 문식을 위한 문예와 독서는 배제하였지만 도를 전제한 문학은 배제하지는 않았다. 식산은 도학적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성리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의 성리학적 자연관과 상상력은 평담한 언어로 심오하고 심각한 사건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문예창작의 태도에는 문예미학이 스며있었고 예술 의경을 추구했으며 그의 성리학적인 형상사유는 문학작품에 앙금처럼 녹아 있었다. 식산이 추구한 성리학은 틀에 박힌 학문의 고질적 병폐가 아니라, 다양한 문예미학의 아름다움 담고 심오한 담론을 함의하고 있는 선비들의 우아한 멋의 철학이었다.

4. 결론

식산은 조선후기 영남 성리학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식산의 시문과 서화의 미의식에는 성리학이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 식산의 문예는 경세적인 성격이 배제된 순수하고 담백한 어조의 미의식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의 연구가 실학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실학의 색안경을 벗고 식산의 문학을 보면 그의 예술에 대한 진실과 깊이를 더할 수 있다. 그의 예술, 문학, 철학은 물론이요, 음악 미술 건축의 분야에 이르기 까지 정주의 학이 바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

주자의 도학적 이치가 묘하게 작품 속으로 들어가기로 궁극적 이상으로 삼았던 식산 이만부의 문예작품이란 곧 그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식산의 예술 정신은 그의 성리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서로 다른 영역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식산은 성리학적 글쓰기를 통해 심성수양에 몰두했다. 특히 그의 성리학적 관찰을 통한 문예 소품에는 묘하게도 성리학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중의의 문예미를 형성해 내고 있다.

식산의 대자연의 진리를 관망하는 산수유기의 심미안 속에는 성리학의 오묘한 이치를 터득한 흔적들이 녹아 있다. 식산은 성리학을 시속에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대처했으며 그의 일상에는 고답적인 선비 생활로 점철되었다.

이상에서 식산의 성리학과 문예미학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한 바 식산의 문학은 성리학적인 예술철학이 바탕이 된 도학적 글쓰기이다. 끊임없는 주자학적 유교 경전의 글 읽기를

52) 홍인표(1986), 226 ~ 227쪽.

53) 『東文選』上, 「東文選序」.

통한 도학적 문장 강화 속에는 오묘한 성리학의 문예 미학이 들어 있다. 식산의 문예물 속에는 도학적 미의식이 함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식산은 성리학적 글쓰기의 문예미학을 위해 끊임없이 자연을 관조하고, 문장을 다듬고, 또 동료들에게 보이고, 평하면서 도학적 문장 강화를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였다. 식산의 시문은 그냥 밋밋한 문장은 하나도 없다. 오묘한 도학의 理趣가 기발하게 함의되어 있어 더욱 감동을 준다.

식산의 문학작품에 드러나는 미의식을 정리해 보면 우선 유교경전에 근본한 미적 표현에서 典雅한 문예미를 발견하고, 순수하고 박실함을 바탕으로 격한 감정의 표출을 억제하고 평담한 언어로 심각한 상황을 담아내는 것에서 淡泊의 풍격과 미의식을 감지할 수 있으며 산수 진원의 한적하고 청아한 정취를 추구하여 인욕을 억제하고 사장을 배격하는 한정의 정취에서는 16세기 사람들의 문예미학인 충담소산, 한미청적, 청신쇄락의 품격이 계승되고 있었다. 식산의 문장에는 유가의 전형적인 온유돈후의 미의식과 중화의 미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의 성리학적 문장들은 묵중하면서도 감각적이다. 그의 문예작품에는 감동적인 서정과 함께 인간의 심성과 대자연의 상관논리를 혼합하는 가운데 理趣를 추구한 성리학적 특유의 문예미가 녹아 있다.

식산의 시문에는 성리학과 관련된 다양한 문예미학 담론이 존재한다. 성리학은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학문이 아니라 심오한 심성의 문제를 바탕으로 당대 사대부들의 예술철학의 기초가 되고 있기도 하였다.

성리학과 문예미학의 상관관계에 대한 예술 담론이 우리 한문고전문학 연구의 지평을 여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갈망한다.

◆ 참고문헌

이만부, 『息山集』, 한국문집총간 178, 179. 민족문화추진회.

權泰乙, 「息山 李萬敷의 記研究」, 『尙州農專大論文集』 제22집, 1983.

_____, 「息山 李萬敷의 記研究(Ⅱ)」, 『尙州農專大論文集』 제24집, 1984.

_____, 「息山 李萬敷의 紀行詩에 대하여」, 『한문교육연구』 12집, 1998a.

_____, 「息山 李萬敷의 文學觀察」, 『國文學研究』 10집, 1987.

_____, 「息山 李萬敷의 사상과 문학」, 『동방한문학』 제13집, 1997.

_____, 「息山 李萬敷의 書研究」, 『석하 권영철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1988.

_____, 「息山 李萬敷의 在陳錄研究」, 『한실 이상보 박사 회갑기념논문총』, 1984b.

_____, 「息山 李萬敷의 傳研究」, 『嶺南語文學』 11집, 1984a.

_____, 「息山 李萬敷의 地行錄研究」, 『嶺南語文學』 14집, 1987a.

_____, 「息山雜著에 나타난 批判精神考」, 『嶺南語文學』 15집, 1988a.

_____, 『息山 李萬敷 文學研究』, 문창사, 1999

_____, 『地行錄』에 나타난 息山 李萬敷의 作家意識」, 『한국한문학연구』 21집, 1998.

金南馨, 「朝鮮後期 近畿實學派의 藝術論 研究-李萬敷·李瀼·丁若鏞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88.

남준우, 「息山 李萬敷의 시세계」,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03.

朴贊善, 「息山 李萬敷의 生涯와 思想」,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1883.

방영달·신영철, 「息山 李萬敷의 息山정사 정원 특성」, 『한국정원학회지』 19집, 2001.

신두환, 『남인 사림의 거장 식산 이만부』, 국학진흥원, 2007.

_____, 「息山 李萬敷의 銘과 그 일상의 미학」, 『한문학논집』 25집, 2007.

_____, 「息山 李萬敷의 교육사상 연구」, 『한문교육연구』 29집, 2007a.

이선옥, 「息山 李萬敷의 누향도의 서화첩 연구」, 『미술사학연구』 227집, 2000.

鄭暎鎬, 「息山 李萬敷의 地行錄研究」,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조남호, 「퇴계학파의 남명학 비판 曹好益, 李玄逸, 李萬敷를 중심으로」, 『南冥學研究論叢』 第10輯, 2004

투고일 2008. 2. 19 심사시작일 2008. 5. 2 심사완료일 2008. 5. 20

The Sung Confucianism and The aesthetics of literature for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Shin, Doo-hwan.

This paper is a study on ' A Discussion on the Sung Confucianism(性理學) and the aesthetics of literature(文藝美學) for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1664~1732) in The Choseon(朝鮮) Dynasty period.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1664~1732), was a great scholar of Sung Confucianism who got over suffering from party dispute the Choseon(朝鮮) Dynasty period. He was left outstanding achievements in academic aspect as well as political and educational aspect. It was human nature and natural laws

How to enjoyment art and culture Confucian scholars in The Choseon Dynasty period. This term derives from ancient chinese a philosophy.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1664~1732)' literary works is accomplished on the basic of Sung Confucianism and the aesthetics of literature.

In his poetry and pross be comprised in the aesthetics of literature on the basic of Sung Confucianism. In his poetry and pross and poetic criticism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1664~1732)valued the dignity of JeonAh(典雅), ChungDam(沖澹), gentleness and sincere(溫柔敦厚), JungHwa(中和) be concerned in the Moral philosophy and an Aesthetics.

**Keywo
rd**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an Aesthetics of literature, Sung Confucianism, Confucian scholars in The Choseon, gentleness and sincere.